경상도 어선 좀 막아주오

전남 남해안 해역 멸치어장 월경 불법조업 극성

지역 어민들 "어장 싹쓸이…생계 위협" 대책 촉구

전남 남해안 해역에 타지역 선단들의 멸치 불법조업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대책을 촉구하는 지역 어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같은 불법행위가 관계당국의 단속은 물론 지역 어민들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어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9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허가된 조업구역을 벗어나 불법으로 조업한 경남 마산선적 32t급 기선권현망 어선 2척과 이 선단의 책임자 A씨(69)를 수산업법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께 조업을 할 수 없는 여수시 돌산읍 임포 북동쪽 12㎞ 해상에서 권현망 어구 1틀을 이용, 멸치 등을 불법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26일에도 돌산읍 임포 북동쪽 11㎞ 해상에서 허가된 조업구역을 벗어나 멸치를 잡던 경남 마산선적 기선권현망 J호(25t) 선단이 적발되기도 했다. 또 지난 2월과 4월 부산선적과 삼천포 선적이 불법조업을 하다 해경에 붙잡힌 바 있다.

이같은 불법 어로행위는 올해 들어서만 수건이 적발될 만큼 지속되고 있어 지역 어민들의 생계마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수선인망협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일찌감치 멸치어장이 여수시 남면 인근해역에 형성되면서 인근 타지역 대규모 선단의 불법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여수지역 선단에 비해 3~4배의 규모를 갖춘 대규모 선단이 몰려들어 어장을 싹쓸이하다시피 해 지역 어민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불법조업을 단속하기 위해 여수해양경찰서와 어업지도선이 끊임없이 순찰을 돌지만, 기상악화 시기나 야간 등 단속취약 시간대를 이용해 교묘하게 이뤄지고 있어 이마저 여의치 않은 상태다.

여수선인망협회 관계자는 "본격적인 어장이 형성되기도 전에 쌍끌이 어선을 갖춘 타지역 어민들이 멸치를 싹쓸이해 지역 어민들의 피해가 막대하다"며 "어장 형성시기만이라도 어업지도선 등이 집중감시체계를 가동해 지역어민들의 생계를 보호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치망 어업협회, 한국수산인경영인 여수시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여수연안불법어업대책공동위원회'는 이같은 불법조업에 대해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다.

현재 여수지역 16개 선단의 선인망 어선은 2007년 4천712t의 어획고를 기록해 235억원의 수입을 올렸고, 지난해에는 7천260t을 잡아 342억원의 수입을 거뒀다.

/동부취재본부=박양규기자 ykpark@

대만 가는 무안양파 무안군 주민들이 29일 현경면 서남부채소농협에서 대만으로 수출되는 양파를 손질하고 있다. 전국 최대 양파주산지인 무안군은 관내에서 재배한 양파 1만9천t을 대만으로kg당 471원에 수출한다. 〈무안군 제공〉

8월의 웰빙 수산물

문어

전남수산기술사업소 여수지소는 29일 8월의 웰빙 수산물로 바다의 카멜레온으로 불리는 '문어'를 추천했다.

고단백, 저열량, 저지방의 어류인 문어는 글리신, 베타인, 타우린 등을 다량 함유하고 강한 단맛과 감칠맛이 특징이다.

특히 타우린은 혈중 콜레스테롤의 증가를 억제해 동맥경화, 심장마비, 시력감퇴, 빈혈, 당뇨병 등에 효과가 있고 성인병 예방 물질과 함께 아연과 구리 등도 함유해 미각 장애를 막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지소 관계자는 "우리나라 관혼상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문어는 피를 맑게 하고 지혈 효과가 있어 미역과 함께 산후조리식으로 많이 이용됐고 먹물은 치질에, 알은 설사에 좋은 것으로 전해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토종 국화 '백마' 양액재배 기술 개발

전남도 농업기술원

국내에서 육성된 국화품종인 '백마'를 양액(養液) 재배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

전남도 농업기술원은 최근 국화연구사업단과 공동으로 국화 양액재배 기술개발에 성공했다.

이번 양액재배 기술 개발에 따라 ▲꽃눈이 생기는 시기의 양액 산도(pH)관리 ▲영양제 엽면살포 ▲백마 품종의 줄기공동화 현상 원인규명 ▲토양재배에 따른 연작장해 등을 해결해 균일한 국화품질을 얻을 수 있게 됐다.

양액재배법을 활용하면 기존 토경재배가 연중 2번 출하하는데 비해 2~3번 출하할 수 있고, 정식(定植)에 소요되는 노동력을 50% 절감할 수 있다.

전남도 농업기술원 황인택 박사는 "지금까지 국화꽃 생산은 주로 일본 등 외국 품종에 의존함으로써 로열티 지급문제로 경영상 애로가 많았다"며 "앞으로 수출국화의 균일화 비율을 높이기 위해 양액재배 기술개발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전남도의 국화 양액재배 면적은 5.5ha (15농가)이다.

/송기동기자 song@

야콘·블루베리·둥근마·단호박

장성군 틈새 소득작목 육성

장성군이 야콘과 블루베리, 둥근마, 단호박을 틈새 소득작목으로 육성한다.

장성군은 최근 획일화된 미맥(米麥) 위주의 농업에서 벗어나 지역에 맞는 고소득 틈새작목을 발굴하기 위해 야콘 등 4개 유망 소득 작물에 대해 현장 실증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3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블루베리를 6천509㎡의 면적에서 재배하고 있다.

또 2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둥근마, 야콘, 단호박 등의 현장 실증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블루베리, 야콘, 단호박 등 소득작목 육성에 성공한 지역의 벤치마킹도 실시할 계획이다.

군은 이를 통해 틈새 소득작목의 재배방식과 작물의 특성, 비료주기 방법 등 최적의 재배환경과 기술을 습득해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이청 장성군수는 "다양한 실증사업 및 벤치마킹을 통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소득작목을 발굴,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작품 교체하고 재배치

목포 근대 역사관 새단장

목포시 근대 역사관(옛 동양척식주식회사·사진)이 새롭게 단장됐다.

29일 목포시에 따르면 근대 역사관 기존 전시 작품 일부를 교체하고 2층 전시실 사진을 시대 역사적 주제별로 재배치하는 등 전시 환경을 시민과 관광객 관람 편의 위주로 대폭 개선했다.

근대 역사관은 일제 강점기 때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으로 사용됐던 건물을 개·보수해 2006년 개관했으며, 전라남도 기념물 제 174호로(1999년) 지정됐다.

개관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월요일은 휴관)이며, 관람료는 무료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함평천지 한우 맛 보세요 내달 1일 무료 시식행사

'함평천지 한우'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기 위한 함평천지한우 무료 시식행사가 열린다.

함평군은 '함평천지 한우산업특구' 지정 1주년을 맞아 다음달 1일 오전 11시 함평 돌머리 해변에서 관광객과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함평천지 한우고기 무료 시식회'를 개최한다.

(사)전국 한우협회 함평군지부와 함평천지 한우고급육회의 주관으로 열리는 이날 행사에서는 1인당 300g 의 함평천지 한우 불고기를 총 2천여 명에게 선착순으로 나눠준다.

또한 이석형 함평군수를 비롯한 기관단체장과 한우·축산관련 단체 관계자, 한우 사육농가 등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함평천지 한우' 홍보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함평=황운학기자 hwang@

日 나가사키 오바마高 자매도시 구례군 방문

구례군이 국제 자매도시인 일본 나가사키현 운젠시와 우호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운젠시 직원과 오바마고등학교 학생 등 15명은 지난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구례를 방문하고 있다.〈사진〉

일본 고등학생들은 홈스테이를 하며 친목을 다지고 구례 학생들과 유스컵 출전을 위한 축구연습 등을 했다.

방문단은 29일 화엄사, 압화 전시관 등을, 30일 자유의 다리와 서울을 견학한 후 일본으로 돌아간다.

서기동 군수는 "양도시 우호교류를 통해 상호간의 문화를 폭 넓게 접하고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이진택기자 lk5826@

완도 금당도 9월 중순까지 갯벌 체험행사

완도군은 금당도 갯벌섬마을(위원장 정승순)에서 자연산 바지락 채취, 고둥 잡기 등 갯벌 체험행사를 다음달 초부터 9월 중순까지 19일간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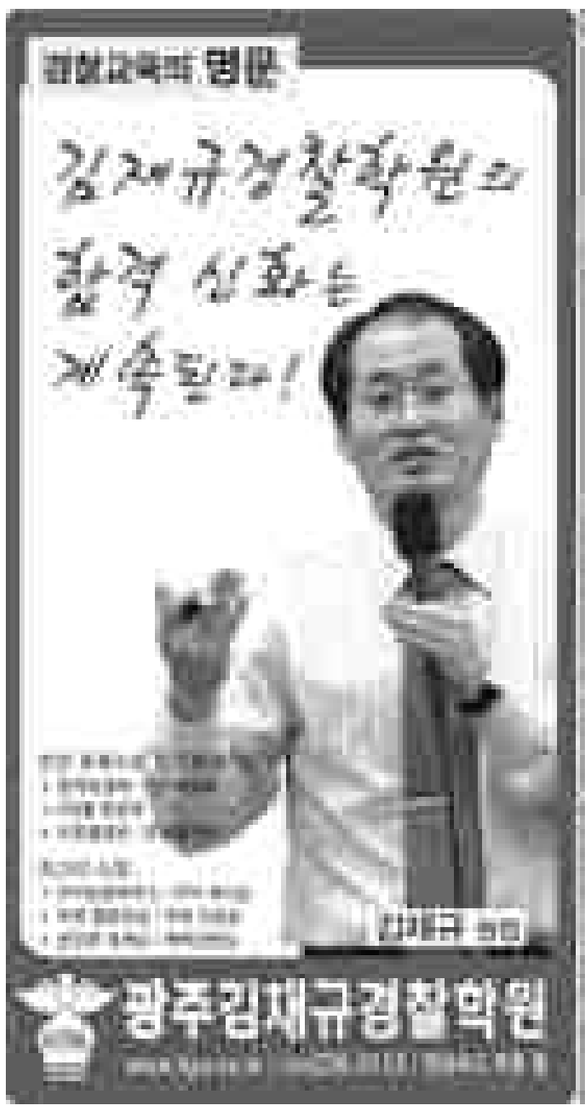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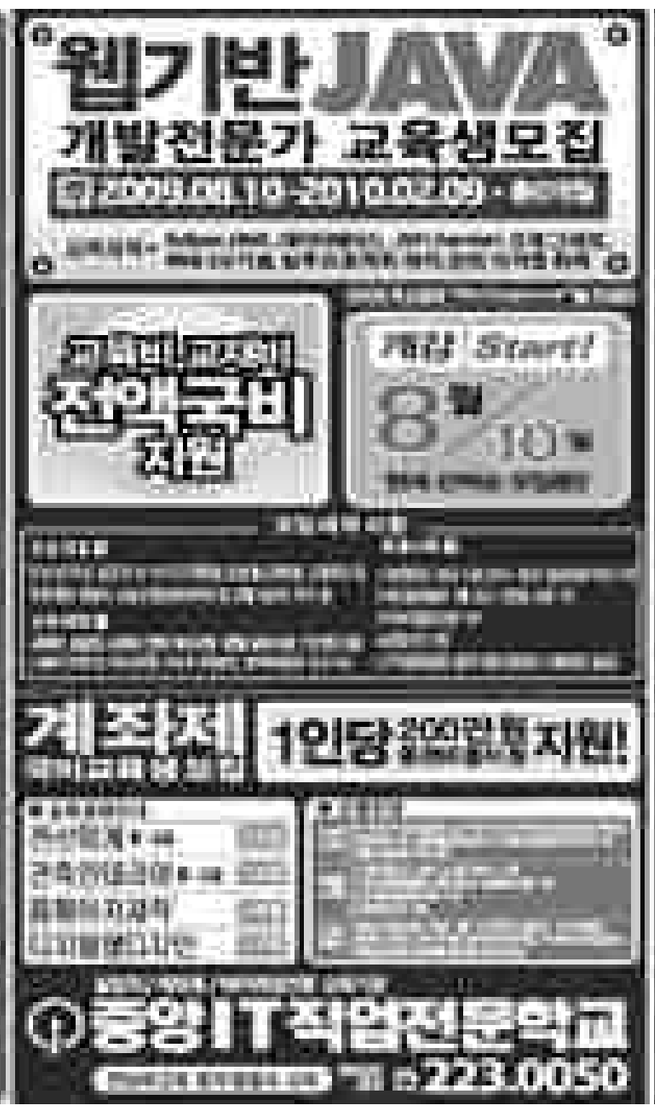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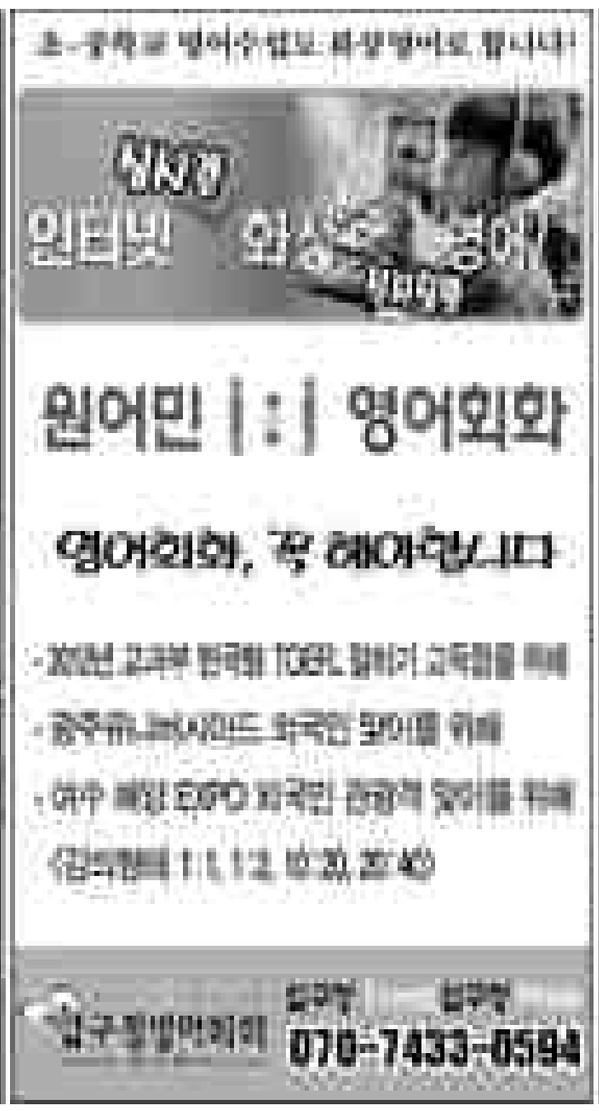
체험행사는 물이 빠지는 썰물 시간대에 맞춰 진행하며 참가인원은 1일 50명이다.

금당도 갯벌 섬 정보화 마을에서 생산되는 미역, 다시마, 톳, 청각, 장어 등을 직접 살 수 있다. 문의 (061-843-4077)/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나주 샬롬산업 청소년 체질개선 운동

나주시 왕곡면에 본사와 생산공장을 둔 농식품 가공업체 샬롬산업(대표 김정매)이 인스턴트 식품에 길들여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체질개선 운동을 전개, 호평을 받고 있다.

샬롬산업은 지난 8일부터 3개월 일정으로 광주사무소에서 '꿈나무 청소년 섬김의 날' 행사를 진행 중이다.

프로그램은 참여 청소년들에게 신선초와 가공효소를 혼합한 12만원 상당의 20여 가지 제품을 무료 제공한 뒤 소화효과 등을 점검해 본인에게 통보해준다. 이와 함께 샬롬산업은 우리 농산물이 몸에 좋은 이유와 효능 등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광주·전남지역 초·중·고생은 광주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문의(062-652-2701~7). /나주=최승렬기자 srchoi@